조계사 원심회 35돌…“지혜의 눈으로 불법 수호”

11월 12일, 원심회 법당서 법회
35년 활동 감사 · 격려 메시지
“장애인 포교 더욱 매진” 약속
불교수어 현황과 과제 토론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창립 35주년을 맞은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11월 12일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쉼없는 장애인 포교 매진을 다짐했다.

“원심회는 35주년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과 화합에 더욱 앞장서며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의 밝은 눈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살아가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11월 12일 서울 원심회 법당에서 ‘원심회 창립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원심회는 ‘원은 둥글어서 어디에서나 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격이 없이 하나의 마음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정체하지 않고 발전하는 밑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수어법회를 필두로 수어 교육, 한글 교육, 불교 수어영상 제작, 불교 수어 창안 및 정립 등 수많은 활동을 이어오며 명실상부 장애인 포교의 1번지로 인정받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 짓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불자들의 신행단체로, 원심회의 명성은 불교계 사부대중뿐만 아니라 타종교 관계자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35년간 쉼없이 달려온 원심회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지도법사 정수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조계사는 장애인에 대한 포교와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조계사 원심회가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원심회 창립법회를 맞아 장애인 · 비장애인 불자 모두는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서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않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지혜의 문을 열길 바란다”면서 “조계사는 장애인분들이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나투신 부처님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진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길 발원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장애인 포교를 위한 열정, 낮은 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신도회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황보희, 이선이, 이명국 회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행활동으로 참된 불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부처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포교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청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주는 BTN불교TV와 청각장애인 불자들을 치료해주고 의약품을 보시해주는 마하의료원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원심회가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전법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계사를 비롯해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이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장애인 포교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심회는 농아부 김경환 포교사가 대표로 한 수화 발원문을 통해 “원심회 회원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불국정토를 만들고자 꾸준히 정신할 것을 맹세한다”면서 “온 세상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환하게 빛나길 두 손 모아 지극정성으로 합장발원한다”고 말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불교수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독교 수어사용 현황과 신규 수어 표준화 과정(강주해 주은농선교교회 은퇴목사) △가톨릭 농인 공동체 안에서의 청인 봉사자의 교육 및 활동(한유 천주교 에파타 성당 봉사분과 부분과장) △불교수어 표준화와 불교수어 사용의 문제점(김장경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김경환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 포교사, 박미애 수어통역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계사 대중, ‘십시일반’ 성역화기금 희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 신도회 등 5300여만원 마련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성역화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길 발원하는 조계사 대중의 마음이 모였다.

조계사(주지 원명)는 11월 15일 대웅전에서 ‘조계사 성역화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앞서 진행한 ‘조계사 성역화불사 원만성취 발원’ 3000배를 통해 모연한 3307만원을, 조계사 신도회 박소윤 수석부회장은 2000만원을 각각 주지 원명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에 원명 스님은 조계사 대중이 마련한 기금에 감사인사를 표하면서 신도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조계사는 2007년 데뷔한 가수이자 작사가인 목비(본명 이선옥) 씨와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김다현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계사가 사찰 차원의 홍보대사를 위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홍보대사는 조계사 신도들의 요청으로 법당에서 노래 솜씨를 뽐내고 “조계사를 자주 찾아 노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했다.



조계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3000배를 통해 모연한 기금을 원명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화쟁위, 갈등해결 사례 수기 공모

11월 14~30일 접수…발표는 12월 13일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가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갈등과 다툼을 넘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화쟁 사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곧 ‘화쟁’이며, 누구나 ‘화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모전에는 일상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갈등을 해결했더니 포교가 잘 됐던 경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 불교적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공모에는 불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200자 원고지 10장 이내 또는 A4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이메일(future108@buddhism.or.kr)이나 화쟁위원회 사무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A동)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는 12월 13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작품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장상 1명에게 100만원, 미래본부 사무총장상 2명에 각 50만원,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상 3명에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9일 개최된다.

화쟁위원장 정문 스님은 “본 공모전을 통해 내가 행하고 겪은 화쟁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들려주며 원효 스님의 사상을 실천해 보고자 한다”며 “불자들 모두가 화쟁 법사가 되어보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02-737-0864

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쉽게 접했으면’ 발원 담았죠”

종원 스님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 기념법회

11월 13일, 대각사 대각성전서
어린이 · 청소년 · 군 · 대학생 등
포교 경험 담백하게 엮은 에세이

서울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의 신간 도서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종원 스님은 11월 13일 경내 대각성전에서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에는 스님이 30여 년 간 어린이 · 청소년 · 군 · 대학생 · 대중 포교 등 다양한 전법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생생한 경험이 진솔하고 담백하게 담겨있다.

출판 기념법회는 노은주 명창의 판소리로 시작해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봉정식, 인사말, 축하인사, 대각사 용성합창단 · 중앙합창당 · 홍승아 첼리스트 등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조계종 前 교육부장 지우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수현심 대각사 명예회장, 종원 스님 속가 부친인 권동용 강원도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원 스님은 “이번 책은 2020년 대각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그때그때 느낀 마음을 글로 적어낸 것”이라며 “보다 쉽고 편안하게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적인 내용을 엮어냈다.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잘 홍보하고 도반들에게 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책이 출판되기까지 애써준 이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며 “책속에 알알이 배인 신심과 환희, 지혜와 자비의 이슬들이 모든 불자님들의 가슴에 촉촉이 스며들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서울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

신간 출판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종원 스님은 늘 부지런하고 근성 있게 맡은 소임에 책임을 다한다”며 “이번 책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중들에게 공감시킬 것인지 흐트러지지 않는 발원과 깊은 고민에서 나온 성과물”이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교육원 前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본인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출가 이후 소중한 삶을 정리한 종원 스님의 책이 더욱 값지다”며 “귀한 책인 만큼 두루두루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책 출간을 계기로 대각사가 더욱 큰 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책을 통해 불법을 펼칠 수 있는 만남이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사미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종원 스님은 해군 해병대 법사 대위로 전역했다. 백령도 흑룡사, 진해 흥국사, 서울 통해사 주지,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군종특별보좌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등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옥천암 극락전 중수불사 회향…아미타불 개금

11월 11일, 관음 · 지장보살상 조성
진우 스님 “국내 대표 관음성지”

서울을 대표하는 관음기도도량인 조계종 직할사찰 옥천암이 극락전 중수불사를 마치고 보다 개선된 대중의 기도처를 공개했다.

서울 옥천암(주지 원경)은 11월 11일 경내에서 극락전 중수불사 관음 · 지장보살 조성 및 아미타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심우 스님 등 30여 명의 중앙종회의원, 법주사 스님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수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옥천암 극락전은 앞서 법당 지붕과 기와, 벽체, 내부 마루 등이 노화돼 대중이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옥천암은 중수불사를 통해 극락전을 해체 보수하고,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새로 조성했다. 또한 기존 아미타불상은 개금불사를 마쳤다. 불상은 인간문화재 전기만 선생이 조선시대 양식에 맞춰 동불로 조성했으며 아미타불은 좌대 포함 5자 반,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4자 반 크기로 했다. 점안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했다.


중수불사를 마친 옥천암 극락전.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회향식에서 오랜 시간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애쓴 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옥천암은 법당이 극락전 하나밖에 없어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참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극락전 불사가 회향한 것은 옥천암 대중의 노고 덕분”이라며 “불사보다 중요한 건 33 · 34대 총무원장을 지내신 자승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포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경 스님은 “서대문구에만 대학교가 9개 있다. 불교동아리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옥천암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불사는 앞으로 인재불사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옥천암이 국내를 대표하는 관음성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천암은 강화 보문사와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양양 홍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관음성지로 꼽힌다. 스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담겨 있는 옥천암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옥천이 보다 잘 조성돼야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이번 불사 회향은 원경 스님의 원력과 옥천암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모여 이뤄진 결과물”이라며 “오늘 하루만의 기쁨이 아닌 세세생생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축사에서 “옥천암은 서대문구에 있는 15개 사찰 중 조계종 직할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역할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청년을 위한 도량을 크게 만들어가는 데 구청이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도선사 “청담 대종사 유훈 따라 정진”

청담대종사 열반 52주기 추모다례 봉행

11월 15일, 호국참회원서

한국불교 청정성 회복과 불교정화운동에 한평생을 바친 청담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추모재가 열렸다.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열반 52주기 추모 다례재를 청담 대종사가 생전에 건립한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청담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문도를 대표해 회주 혜암 동광 대종사는 “그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고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셨던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회고한 뒤 “열반하신지 5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큰스님을 기억하고 큰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잘 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를 대표해 “큰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문도들이 더욱 화합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청담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헌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선사는 청담대종사 열반 52주기를 맞아 청담대종사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고불식과 청담대종사 유묵(품) 전시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다례식 후 사리탑에서 봉행된 정비불사 고불식에서는 주지 태원 스님의 고불문 낭독, 정비불사 보고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수능 스트레스 템플스테이로 날려버려”

문화사업단, 수능 응시자 대상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
11월 16일~12월 15일 접수

수능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치열한 입시를 완주하기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대상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는 전국 58개 사찰에서 본인 부담금 1만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수능일인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가능하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과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문화사업단은) 청년 · 대학생 및 새내기들의 건강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